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과정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Œ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웅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자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일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후 2:1)

현재 우리는 매 금요찬양집회를 통해서 구별된 삶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삿 13:5) 구별된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 삶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인한 거룩이 아닌 보혈을 통한 거룩입니다. (히 13:12) 그런데 악한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인 이 삶에서 떠나게끔 우리를 교묘히 속이려 합니다. 경건한 구역장의 모습, 예배에 빠지지 않는 성도의 모습, 성경연구에 관심이 많고 정이 많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가 속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다가 발견된 이단을 보더라도 가장 부담 없는 접근 방법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회 성경공부에 참석하기도 하며 후배들의 가정교사를 자청하며 접근했습니다. 때로는 식사와 속식 또는 훌륭한 영적지도자를 만나자고 제의하기도 했으며 생활비와 학교 등록금을 실제로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은 이단의 속임수는 매우 교묘합니다.

이같은 이단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는 자신을 교주로 신격화 또는 특권자로 묘사하거나 주장합니다. 신자들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학생들에게 학문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미혹합니다. 종교적으로 사기행령, 금품추탁, 재산합치를 감행합니다. 자신들 주장의 반대 의견에 공갈협박, 집단폭행, 인권을 탄압합니다. 신앙을 빙자하여 감금, 성폭행, 혼음으로 인권을 유린합니다. 신앙공동체의 재산·금품 등을 교구가 사유화합니다. 이단에 미혹되어 가솔, 가정파괴, 집단생활로 가정과 사회와 단절시킵니다. 무속적 기복신앙을 강조하며 축복권과 저주권을 행사합니다. 자신들의 교묘한 교묘로 강조하여 구원받았다고 강조하며 정통교회를 비판하고 혐오하며 신자들을 현혹합니다. 교주 자신을 하나님이나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으로 암시하여 선전합니다.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변질시켜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의 교묘한 속임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 싸울 힘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엡 6:12) 이단들을 분별하고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매 순간 개에 근신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엡 6:13)

*이단에 대적할 수 있는 소책자를 사무국에 비치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이나 교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개 교구에 따른 일꾼 추가 임명

더욱 견고해진 24개 교구는 복음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4개 교구는 제1·2교구위원 회로 나누어 각 교구식구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종합적인 양육 체계가 되었습니다. 장년 성도만이 아닌 모든 가족을 위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각 교구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복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개편된 교구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새 교구로 세워진 일꾼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교구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히 10:22)

*24개 교구 일꾼 명단은 본지 7면을 참조.

오늘 찬양예배 시에 제2차 학습·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릴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라! (금요찬양집회)

구별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시 57:7,9)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긍정적인 태에 달려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다. 바울은 우리들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외친다. (롬 6:13) 그레아만 육신의 일을 극복할 뿐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요 13:34,35) 그의 뜻을 못 행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 버려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거룩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러났다면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탕자처럼 우리는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볼 때 매력을 느낀다. (눅 15:12~14) 세상의 것들이 잠깐은 쾌락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그 결국은 어떠한가! 탕자는 돼지 치는 자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다. (눅 15:15,16) 이것이 부모를 떠난 아들에게 일어났다. 이제 그는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의 일꾼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쓴 웃음 을 짓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다. (눅 15:20,22,24)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가 죄의 화려함과 유혹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결국은 죽음, 멸망뿐이다. (벧후 2:1~3)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헌신하여 드릴 때에 삶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긍정적인 것이다. (벧전 1:23~25; 시 16:2~4) 우리에게 임할 이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기쁨을 상속 받아 진정한 삶인 영원한 생명을 이 땅 위에서부터 누리기를 원한다. (시 16:5,6,11)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찾아 헤매며 세속 문화 속에 빠져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하신다. (롬 12:2)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무지

운 짐을 지고 쓰러져가고 있지 않은가! (마 11:28)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안과 밖이 모두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러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임하여 그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참손이 세상과 많이 타협한 자이나 주님은 그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참손이 들릴라를 향하여 그의 진심을 모두 토설하기 전까지 그의 구별된 삶의 단편은 남아 있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머리카락이 밀어지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참손과 함께 하였고 참손은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활동 하였다. (삿 16:16,17) 그의 머리카락 자체에 어떤 힘이 있었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다. (엡 6:10)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참손이 가졌던 것을 능가하는 힘, 마귀를 대적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 종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인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면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현재 많은 신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다. 마약 중독에서 몰라낸 한 복사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런 능력의 소유자가 나를 마약과 음란의 굴레에서 풀어주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마약을 하고 싶다고 돌아왔을 때 사장은 아내와 어머니가 보신 한 남자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모든 문제들을 이미 나누었고 나에게서는 더 이상 비밀 자신감과 비밀은 없었다. 그때 나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고 처음으로 물어보았다. 그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빛도 세미한 음침도 드러지지 아니하였다. 나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보낸 그분과 앉아 말했어요. “진정 해방되고 싶어요. 그 해에 보낸 분은 나에게 말했다. ‘하침에 을 떠나 그대 감이 기도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6시에 우리는 한 시간 동안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기도하였다. 그는 아무런 말 없이 ‘내일 아침에 또 읽겠습니다.’라고 하며 돌아갔다. 바로 그날부터 자유함이 시작되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한 결과였는데 내 안에는 놀라운 평안으로 가득했고 말씀이 깨달음을 주었다. 구원함의 역부를 수 없는 감격이 일어났다. 나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은 말씀과 기도였다.

지금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자신을 구별하여 훈련시키며 하나님께 구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 이 원칙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살아 유효하고 있다. (골 2:6,7,9) 아멘.

JESUS CHRIST, HIGH PRIEST

⁽²⁰⁾And inasmuch as it was not without an oath ... ⁽²⁴⁾but Jesus, on the other hand, because He continues forever, holds His priesthood permanently. ⁽²⁵⁾Therefore, He is able also to save forever those who draw near to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ys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

(Hebrews 7:20~25)

Jesus Christ is our Savior. Whoever comes to God through Him, He saves. He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believers. His job is High Priest, not from the line of Levites but from the order of Melchizedek. Melchizedek was high priest prior to the Mosaic Law, and the Levitical priesthood existed for the Mosaic Law. During the Levitical priesthood only the high priest entered the Holy of Holies to make intercession for God's people. These men took office without an oath and all died. Jesus Christ became High Priest under God's oath, "The Lord has sworn And will not change His mind, You are a priest forever." (v. 21) The Bible tells us, "For when the priesthood is changed, of necessity there takes place a change of law also. (Heb. 7:12) Melchizedek gave way to the Mosaic Law and the Levitical priesthood, which in turn gave way to Jesus Christ and God's grace. Christ's priesthood is forever. He has perfect and everlasting power. Most of today's Christians neglect Jesus Christ's role as our High Priest. They do not appreciate His amazing position.

Jesus Christ is an indestructible High Priest. His life is always in the presence of God. No one can destroy Him, "who has become such not on the basis of a law of physical requirement, but according to the power of an indestructible life." (v. 16) The Bible tells us that the Levitical priests or former priests existed in greater numbers because they were prevented by death from continuing, "but Jesus, on the other hand, because He continues forever, holds His priesthood permanently." (vv. 23&24) He has the power to change our nature, making us perfect forever. Only He is able to save forever those who draw near to God through Him. He is unbreakable, imperishable, and permanent. He is our Eternal High Priest.

Jesus Christ lives as High Priest to intercede for humans. Unlike earthly kings and presidents, who eventually lose office or die, Jesus Christ maintains His priestly office eternally. My position as Senior Pastor is temporary, as is all other men and women who serve God in the church. Jesus is forever. He is Lord of lords, King of kings, and God Eternal. He spoke the whole earth into existence through His word. The angels of heaven praise Him continually, yet He still asks God the Father to forgive me and you for our sins—not just for one day or one year but forever. His righteousness makes for perfect salvation. Can you envision Him begging God in your behalf? In God's presence, sin must be punished. Jesus intercedes for the guilty. He asks God to forgive you. In Old Testament times, the high priests were required to sacrifice animals before worshipping God and

beseeching Him for forgiveness and salvation. God sent His Son, Jesus Christ, into this world to die for sinners. His death paid the price once and for all. He was the perfect, sinless, sacrifice. Only His righteousness covers God's judgment against sin, which is why He is the only One who can intercede for mankind.

As High Priest, Jesus Christ is able to save all persons completely.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does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Jn. 5:24) Those who hold Jesus in their hearts as Savior will escape God's judgment. Romans 8:34 tells us, "Christ Jesus is He who died, yes, rather who was raised, 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also intercedes for us." As our High Priest, no one can interfere or go against Him,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s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8:38&39) Amen.

As High Priest, Jesus Christ saves only those who come to God through Him. No one can come to God any other way. Without Jesus you cannot have access to God. Only Jesus Christ's intercessory prayers can make God available to you. Most people, including unbelievers, do not curse God but rather neglect, insult, ignore, and reject Him. Even though you do not curse God, if you do not come to Him through Jesus Christ, He will curse you. 1 Timothy 2:5 is very clear, "For there is only one God, and one mediator also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Listen to Hebrews 9:24, "For Christ did not enter a holy place made with hands, a mere copy of the true one, but into heaven itself, now to appear in the presence of God for us." John tells us, "My little children, I am writing these things to you so that you may not sin. And if anyone sins,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1 Jn. 2:1)

In the courtroom of God, which every human being will enter on Judgment Day, if Jesus Christ is not your Defender; your soul is eternally damned. Right now, in this life,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ccep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so that He can perform His High Priest work on your behalf. If He is not your High Priest now, then He cannot be your Defender. You need Jesus today because tomorrow is promised to no one. He lives to save those who believe in Him. Do you believe in Him? Is He really your High Priest? I hope so for the sake of your eternal destiny. 

다음 주일 설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20)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같리지 아니하나니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20~25)



김성관 목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신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모세의 율법에 있기 전에 존재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의 제사장직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이 제사장직을 맡는 동안 오직 대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중재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맡은 직임은 하나님께서 보충하시는 영원한 맹세가 없었기에 여느 사람들처럼 모두 죽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21절)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12절) 멜기세덱은 모세의 율법과 레위 족속의 제사장직에 바통을 넘겨주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예수님의 역일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16절) 레위족속이나 이전의 제사장이 많았던 이유는 죽음으로 인해 그 직분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않습니다. (23, 24절)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영원히 온전하고 흠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으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중보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들이 결국은 직위를 잃거나 죽는 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제 직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łud가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의 의로움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간구하기 전에 먼저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

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값이 단번에 영원히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죄가 전혀 없는 희생제물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이유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마음 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34는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누구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해방하거나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 39) 아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시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5은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9:24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외교에서는 참 것의 그림자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심판의 날, 모든 사람이 거처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변호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시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

이웃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

교회의 5대 목표 가운데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장애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랑부(정신장애우)와 애바다부(정각장애우)는 매주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흥천복지관(정신장애우)은 평일 사역을 통하여 그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우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장애를 통해서 오해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장애우를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의 심령이 항상 보혈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소년의 기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리가 많이 아프고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많이 보고 싶어서 매일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심을 매일 믿고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매일 기도하고 성경도 열심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매일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게 할래요. 그리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주께 감사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백승길(사랑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쁨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부 집회시간에 사랑부 교사들이 오셔서 사랑부 교사 모집 광고를 하였습니다. 평소 장애인 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가까이 지원할 하고 지금까지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에게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조금은 무서워 보이기도 했고 나와는 다른 모습을 보면서 ' 과연 내가 여기서 교사의 소임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때의 결정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쓰셨음을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사랑부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보통 사람들과는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의 편견 앞에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지만 우리 사랑부 학생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그들을 볼 때 주께서 그들에게 불편한 몸을 주셨지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셨음을 깊이 느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사랑부를 세워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종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베풀기 위해서 사랑부 교사들은 사랑부 지체들과 함께 줄거를 대 같이 웃고 슬퍼 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몸소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아가겠습니다.

신준성(교사, 사랑부)



저의 장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인 지호의 어머니의 권유로 흥천교회에 나온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제 마음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 속에 천천히 뿌내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죄가 눈에 보이지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아주 지루했는데 수화를 통해 들려오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은 점점 나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애가 있음에도 주님은 저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연약한 자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A국에 두 번 다녀왔었고 B국에는 2년 연속으로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A국과 B국에서 사용하는 수화가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B국의 수화와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그곳 농아인들과 마음으로 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준비하여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정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말 없는 몸짓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면서 드디어 약간의지만 수화가 통하였고 서로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는 우리 팀과 함께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함께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수화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마다 현지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능력에 감동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리만 하신다면 평신도 선교사가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장애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막지 못할 거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저의 장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장애를 가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아이들을 살 수 있는 간절한 믿음으로!

박영진(애바다부)

예수님! 예수님!

- ♥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를 보살피고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힘들 때 찬양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홍순영(사랑부)**
- ♥ 제가 힘들고 피로할 때 기도해 주시고 제가 병이 나서 아플 때 낮게 해 주세요. **김순영(사랑부)**
- ♥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 찬양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 좋아요. **이희연(사랑부)**
- ♥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의 한 분으로만 생각했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어 만나는 농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애바다부)**
- ♥ 예수 그리스도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로써 주는 분이세요. 제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 오시길 기도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지은(애바다부)**

제가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A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죄 많은 여인입니다.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에 어떻게 한국에 왔습니다. 그 때 저의 계획은 오직 돈을 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저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든든 버는 것에 눈이 멀어 있던 저를 천령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제가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날의 기쁨은 지금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은 저로 하여금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졸업보다 더 감사한 것은 지난 몇 년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이슬람에 젖어 있던 저를 회개시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하라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A국의 가난한 여인이 한국에서 전도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슬람인 남편과 예수님을 쉽게 영접하지 않았습다. 신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꼭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국으로 저를 부르시고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저의 고향인 A국 땅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A국으로 갈 것을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졸업장을 앞두고 A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슬람 나라인 A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어떤 핍박이 있을 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저를 두렵게 한 것은 함께 가자 할 5살 난 아들의 영혼과 믿음을 이슬람 세계 속에서 지켜줄 믿음도 힘도 제게는 없었다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드린 저의 약속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과 두려움에 덮여 있던 중 지난 12월 말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심하게 아팠습니다. 더욱이 고향인 A국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려 한다는 소식은 저를 더욱 낙심하게 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해 준 할아버지께서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저쪽에 간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였고 주님과 약속을 어키로 지키려 하는 저의 못한 의지와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은 저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상에 누워 있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A국 땅에는 할아버지와 같이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생각나게 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웠고 낙심했던 저를 회개시키셨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부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남편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 A국으로 아들 다윗과 함께 갑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천령교회의 가족을 주시고 천국에도 나의 가족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예수님은 A국에 있는 저의 가족들도 천국의 식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저와 동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저의 아들 다윗을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이 최고입니다. 어디로 보내셔도 무엇을 하라 하셔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가 주세요. 저도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 주세요." 아멘.

글:노자(4월 24일, A국으로 5살 난 아들과 함께 현지인 선교사로 파송 예정)

베드로와 같은 나의 모습

선교가 자류습지 못한 C국으로 선교지가 결정되었을 때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선교를 준비하면서 불안한 마음은 사라졌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감당하겠다는 믿음으로 선교지를 향해 출발했다. 하지만 선교지에 도착하는 순간, 그런 마음이 언제 있었는 것이 바로 깨져버렸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여 불안한 말들이 터져 나왔다. 열악한 환경, 경찰의 감시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하는 불안감 등은 나를 상당히 지치게 하였다. 첫 사역이 시작되었다. 해발 2000m인 사역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산을 중심으로 화전을 이루고 산꼭대기에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었다. 도로에 가까운 마을들은 항상 경찰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전도사역을 시작하였다.

힘들게 산꼭대기에 올라가 한 집, 한 집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금지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때마다 힘이 빠지고 산행으로 지친 육체는 더 지쳤다. 하지만 그 날 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내 마음 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그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만, 너는 나를 알고 있으므로 나를 부인할 때가 있지 않느냐?" 순간 기도를 멈추고 아무런 말도 못했다. 너무나 나약한 내 모습, 예수님을 알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선교지에 보내주신 예수님,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한 번 설교에 참여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얇은뱀이 일어나는 믿음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주님 위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회개와 감사가 흘러나왔다. 이후 힘들게 나갔던 산행이 어렵지 않았고 현지의 사람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도 실망보다는 그들을 위해 인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 번의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번 C국 선교가 제일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열방과 족속이 주님께 나아가 경배 드리는 주님의 은총 속에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김덕수(직원 2월)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평신도 단기선교사
4월 4일(수) ~ 6월 23일(목)	정영미 · 전혜원 (예비사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9일(월) ~ 4월 18일(수)	17교구	이성섭
4월 9일(월) ~ 4월 18일(수)	19 · 18교구	최진성
4월 10일(화) ~ 4월 19일(목)	24교구	김홍기

다음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23일(월) ~ 5월 2일(목)	7 · 8 · 24교구	정일남
4월 27일(금) ~ 5월 5일(토)	24교구	이달욱

예수님의 증거자

선교는 정말 특별한 사람만이 간단하고 생각했던 제가 주님의 은혜로 3년 전부터 매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기 위해 1인 1명 이상 전도해야 하는 교회의 방침에 따라 고등학교 교사인 저는 저의 반 학생들을 전도하였습다. 쉽게 반 학생들을 학생들을 보며 '이렇게 쉽게 전도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니 그것은 연약한 저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이끄심이었습다.

학생들을 함께 전도 한 번 못 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두드러진 열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두드러 보지 않고 주저했던, 믿음이 적었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학생들을 교회로 데려왔는데 그때 대해 학부모들의 열려가 있을 거라는 우려는 기우였습다. 저에게 오히려 감사의 전화까지 주시는 학부모님이 계시며 더욱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새로운 소명임을 깨닫습다. 2년 전부터는, 매년 새봄에 만나는 반 학생들의 종교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며 교회 면담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새봄에 가르칠 교회와 학교의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저희에게 보냈던 겸손과 자기부인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님과 은혜 내려 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임대복(교사, 고등학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평소 같았으면 잠을 자고 있었을 새벽 시간. 고난 주간에는 전교인이 다 가는 거라기에 의무감에 새벽기도회에 나왔다. 고난 주간이었지만 특별히 따로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았기에 ‘새벽기도회에도라도 가서 말씀을 듣자’라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나간 새벽기도회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탄식하며 부르짖는 예수님이 느껴졌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의 죽음에 내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했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다.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인정받기 위해 적당히 헌신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부끄러운 나였다. 말씀을 통해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온전한 헌신의 사랑을 할 것을 결단하게 하셨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나도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이 소망된다.

김요한(대학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총현교회에 온 지 3년 정도 됐는데 성공요일에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고난을 처음으로 함께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겨우 하루 굶는 것도 배고프고 힘든데 예수님께서서는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고통은 아마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요찬양집 시에 있었던 성만찬의 말씀과 예식은 다시 한 번 외식으로 가득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물음에 저는 일순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큰 죄인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하시고 고통당하셨는데...” 이처럼 사순절과 고난주간, 특별히 성공요일 금요찬양집의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인약의 피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이 되시고 제 일에서 주님을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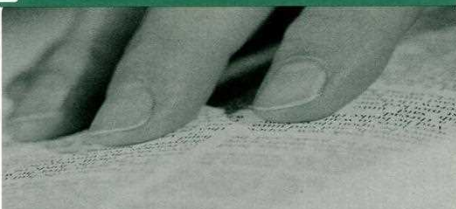
주민성(대학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월은 참 빠르다. 인연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목사님의 권유로 몸 된 총현교회를 섬긴 지도 벌써 23년이 되었다. 그 동안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큰 교회로 오니 일꾼들도 많아 나는 일할 자리가 없구나!’ 싶어서 84년에 등록하고 88년에 작은 교회로 옮기려고 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었다. 그 말씀을 들은 나는 즉시 순종하여 지금까지 몸 된 제단을 섬기면서 얼마나 감사한 지를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감사한 것은 구역장과와 만남이다. 그의 첫인상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지만 연약한 육체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주님께로 인도하며 믿음을 심어주기에 최선을 다하여 시어머니가 집사의 직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치매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오 남매의 막내며느리인 구역장이 벌써 15년째 돌보고 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언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다. 시어머니를 모시기를 기뻐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을 실천하는 분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자기를 부린하여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진실한 그 믿음. 백부장의 믿음 같은 구역장은 정말로 좋은 믿음의 본으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다. 교회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귀한 구역장과의 만남을 주신 종으신 예수님. 내가 만약 이 제단을 떠났다면 이처럼 좋은 구역장과의 만남은 없었을 텐데! 은혜가 풍성한 우리 총현교회에서 십자가의 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충만하셔서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남보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복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정선(권사, 17교구)



여호와와 내편이시라!

모태신앙인 저는 십수 년 동안 너무나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시간엔 목사님 말씀과 찬 생각이 뒤얹혀 설교가 끝나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장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레놓고는 설교시간에 떠드는 내 친구들을 멀리하며 ‘그레도 말씀을 듣고는 있는 나’에 대해 매우 고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착하고 바른 예배를 드렸을지는 모르나, 예배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서 보신다면 허를 찌를 일이었습다. 수련회에 가서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때뿐, 집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저는 세상과 교제하며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성경과 찬송가를 가까이한 적도, 주님을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인 양 행세하면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저의 겉모습만 화려한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부인해야 하는지 주님께 여쭙고 구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의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대에 누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어릴 때 성경 말씀을 외우고 상으로 받은 액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내 편이시라!’ 순간,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기만 했던 못나 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저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껏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버리고 살았다는 자책감이 저를 뒤튼들었습니다. 그 뒤로 성경을 하루에 한두 장씩 읽어 나가면서 저는 주님께 제게 참 많은 것을 허락하셨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앞날에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아주 조금씩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 눈에 손을 갖다 대고 가린 그 손을 조금씩 치우듯 아주 조금씩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은혜받은 말씀에 밑줄을 치며 묵상하는데 매일 제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리고 하나 같이 어찌나 달콤한지,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매일 주를 적십니다. 은혜의 밑줄이 늘어날수록 따라 영의 배가 불러들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생명의 양식 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의 중심을 예수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와 내 편이시라! 하나님께선 늘 내 편을 들어주시고, 저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이 그렇게도 든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반쪽’ 은혜가 아닌, ‘한 순간’의 영광이 아닌, 평생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내 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심지어 길을 걷는 것까지도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믿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에, 특히 제가 금요찬양집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부모님께서는 “왜 갑자기 그렇게 열성이니?” 하며 혹시 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고 장난스럽게 핀잔을 주시지만 그레도 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게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레라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많입니다. 아무리 학교와 공부나 나를 묶어매더라도 그런 힘든 일상 가운데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순종하는 제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갈 2:20) 이제 저는 예수님이 저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수빈(고등부)

제 1 · 2 교구위원회 일꾼 명단 / 새가족

제 1 · 2 교구위원회 일꾼 명단

제 1 교구위원회 위원장: 김은호 지 도: 김익환 서 기: 안석현 회 계: 고제승

교구	교구장	목 사	전도사	지 역 장	전 도 회							지원봉사	새가족	간 사
					바울	베드로	요한	한나	에스더	루디아	마리아			
1	김신국	이재영	김정연	1.이승득 2.윤선한 3.양한원 4.구원섭 5.장창원	윤선한	이영환	송현덕	이윤리	강옥연	김승희	이수진	구원섭	강 옥/신명주	김 옥/고윤희
2	정창수	안치원	장효숙	1.최세진 2.이보선 3.김대용 4.홍순길 5.전삼진 6.박종철 7.허만선 8.한원석	최세진	홍순길	최승민	이근덕	양상숙	안하순	최문정	김대용	장상진/정주혜	김승환/구명숙
3	구재환	김익환		1.신전수 2.정인옥 3.이부성 4.이영환 5.김승구	김 광	안세현	김명식	김영아	최수자	이명옥	김현아	이영환	이찬제/주순희	정인옥/이정미
4	안석현	장 훈	이복순B	1.박남주 2.이준식 3.문영주 4.김환환 5.박봉선 6.장태동 7.박종훈	양승길	홍선기	정진근	김장자	유현숙	이명애	김미정	김희동	장봉성/양영순	홍선기/함윤자
5	양기수	하종철	이옥주	1.김옥권 2.이정태 3.최종순 4.김성호 5.장기막 6.김달현 7.박옥현 8.박광식	박광식	황재현	이상성	김정필	김영애	이연희	류점희	김영연	강윤옥/공성연	최병일/오정림
6	김규식	최성재	김말자	1.김영주 2.박광식 3.이세영 4.지규성 5.이병두 6.김현철 7.안상직	최용길	장정옥	정수일	김순은	허준하	김유자	고희환	김현근	김정배/최숙자	오은성/권연숙
7	고제승	이희식	이혜숙	1.박식산 2.송한진 3.한용태 4.박용기 5.최태환 6.장길남	표왕열	송한진	권한연	홍복기	김경희	이미광	장난주	강천석	위길호/이명숙	이연범/김형숙
8	송두섭	임현덕	최문실	1.이기옥 2.조준민 3.박영섭 4.남용철 5.윤병식 6.이인광	이인광	조준덕	이산동	이경자	이중영	강주희	최미정	임병준	김 근/신영희	이재호/오영자
9	박철구	김준희	옥미자	1.김종홍 2.강홍선 3.이정훈 4.전성옥 5.남용승 6.이덕규	이덕규	김을필	하정주	박윤식	구정희	김남희	최희경	박준근	강홍선/이승연	김을필/최환희
10	장승구	윤수일	전은희	1.김해길 2.우병창 3.정철식 4.이창희 5.김종성 6.김연태 7.정문호	최만우	장지관	최영민	이분옥	김영자	오영선	상유경	안노수	이창희/함화자	김상철/박은주
11	박덕양	강병구	윤인숙	1.김현배 2.장영환 3.김영록 4.조영철 5.김동희 6.이상복 7.김충식	김현배	주낙진	신현옥	문경희	김복수	김수영	김현아	박성근	이현진/정경희	이양호/오광순
12	황의만	양태선	한영준	1.강희창 2.장재모 3.양보희 4.강만호 5.심하리 6.노태경	오재일	정재복	이상근	은필배	김현미	정숙자	이지영	김경환	김병성/김정관	이흥수/정옥련

제 2 교구위원회 위원장: 임무천 지 도: 안창학 서 기: 정철길 회 계: 김태식

교구	교구장	목 사	전도사	지 역 장	전 도 회							지원봉사	새가족	간 사
					바울	베드로	요한	한나	에스더	루디아	마리아			
13	박상대	류병희	황순만	1.정운환 2.정찬용 3.김철남 4.조홍연 5.이상배	정운환	최현구	이왕진	유일옥	황정희	조태숙	김복현	이상배	김동철/박옥자	이상배/윤 순
14	김구형	김환수	김정자	1.채용표 2.박종훈 3.이희우 4.류기명 5.김진옥 6.김종훈 7.권오준 8.최우근 9.임희준	박종훈	조성수	송중식	성준순	임명희	남준자	최복현	류기명	박광용/전제숙	김준광/이미주
15	이상식	안창학	임태주	1.박원희 2.이병근 3.이홍기 4.문희식 5.장철환 6.최민석 7.유종석 8.박우현 9.이흥우	권준철	구성혁	박선정	조윤숙	김명선	곽숙단	홍윤경	서진원	구성혁/김하경	유형근/주미아
16	석영식	이경준	김연식	1.김종만 2.김철환 3.장경수 4.정원근 5.양승환 6.박성명 7.박찬서	안병태	전진국	최승원	권정희	임정숙	김세향	조영미	정원근	김정숙/이애영	김봉화/태광희
17	함철주	유성택	홍순애	1.조문수 2.김영목 3.최경화 4.강창식 5.예종호 6.이성철 7.이양선 8.정영래	박찬옥	김연희	류태준	김영희	김옥자	안정숙	고희선	이상섭	류태준/신동미	이선홍/이성숙
18	김태식	이성진	김정희	1.김정만 2.윤해균 3.이강근 4.김기태 5.김홍필 6.최홍집	박미연	공석생	김성현	오희자	김진자	김학선	안선희	이강근	조순택/채임숙	김성현/생지현
19	노영환	유현철	전영희	1.박종태 2.김종춘 3.유승필 4.최진성 5.안준모 6.박종용 7.이정택 8.김수연 9.강석희 5.권영주 6.강신철	최진성	안준모	김경민	임신영	김태숙	이인숙	최정숙	박종태	김정실/오형실	임종영/박남희
20	신상수	황진섭	강덕필	1.박종용 2.이정택 3.김수연 4.강석희 5.권영주 6.강신철	이민호	김기홍	김영희	김영미	박현순	박경희	김지영	박종용	이성남/한연숙	이근호/박귀숙
21	정정길	최종철	이복순A	1.이영식 2.임재복 3.정철규 4.박명근 5.양승복 6.유병수	김재춘	이영식	조승준	박영순	양승남	함진옥	이정희	이승구	문우식/박상남	임영순/박숙희
22	임무천	정종순	강영미	1.김성수 2.현준봉 3.윤상철 4.홍원석 5.안성영 6.윤병범 7.이상범 8.김재호	성대열	정승진	이호식	남상민	류향란	김성자	안은애	임무도	김종녀/김옥희	이기숙/유정선
23	김연근	한성임		1.조종광 2.유재순 3.이호일 4.박규연 5.김만중 6.한홍연 7.현승조	이창우	박문선	박노익	고효영	송영복	임창순	황규리	박규연	한홍연/양혜영	김동만/강옥희
24	전학태	최서규	안태순	1.정운출 2.김홍기 3.한만교 4.신준식 5.김원희 6.이달옥 7.박재현 8.정금수 9.강두형	박민호	임광진	변기삼	방소애	김금숙	박경애	이윤정	김홍기	김상일/홍명희	정재영/남계순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49	이경복	1	청년2부	이유숙(1)	663	이연철	17	청년3부	정병남(18)	677	오영숙	23	청년1부	이계옥(12)	691	여귀	외선부	백인옥(2)		
650	안진범	7	청년1부	김정희(24)	664	박수정	13	청년1부	정순옥(2)	678	문용태	23	청년2부	오종희(2)	692	한지희	외선부	권예스더(14)		
651	이창훈	22	청년2부	민지영(16)	665	김보성	14	청년1부	정선현(24)	679	이병호	11	에바디부	최진희(11)	693	쿠마리	외선부	임금순(2)		
652	권효영	21	청년1부	김재준(21)	666	박민환	14	청년1부	윤영희(17)	680	임정현	13	청년1부	김영선(2)	694	편홍호아	외선부	김석영(7)		
653	김인주	20	청년1부	고명진(21)	667	최희숙	8	청년2부	김태연(4)	681	송재정	17	청년2부	이정희(4)	695	담반유	외선부	나기태(23)		
654	문재현	19	청년2부	김정희(7)	668	김종관	23	소양부	김재길(10)	682	이준희	10	청년2부	박준근(9)	696	이영호	6	청년1부	최호순(4)	
655	황정태	3	청년1부	전성홍(9)	669	김민희	17	청년1부	박정숙(7)	683	변규진	17	청년3부	변금순(22)	697	김대봉	5	청년1부	최호순(4)	
656	김수미	13	중동2부	김자하(1)	670	정지은	10	청년1부	김종현(10)	684	김소나	19	청년1부	김상희(22)	698	임병희	5	청년1부	최호순(4)	
657	김민지	6	청년2부	김재준(21)	671	최희숙	17	청년1부	로미예(23)	685	김정후	8	청년2부	김정순(21)	699	윤형순	23	청년1부	김성희(5)	
658	김현태	23	청년1부	하정희(24)	672	신정경	12	청년3부	한영자(11)	686	최지영	8	고등부	김정순(21)	700	김종현	17	청년1부	유옥련(17)	
659	정우연	17	중동3부	이병두(6)	673	최희정	18	청년1부	이승근(1)	687	사투리	와신부	장종옥(21)	701	김기영	4	청년1부	김종선(2)		
660	최아람	8	중동2부	백민희(10)	674	김지혜	10	청년1부	이정선(17)	688	박기	와신부	장종옥(21)	702	이현숙	23	청년1부	임부주(16)		
661	최소선	8	중동2부	강태정(10)	675	김지혜	10	청년1부	이정선(17)	689	박선홍	3	청년1부	김민우(1)						
662	김태원	14		정병남(18)	676	최희순	17	청년2부	김정숙(17)	690	양윤식	2	청년2부	김명선(12)						

